

2024. 2. 27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 
공정경제담당관

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7쪽

공정경제담당관	김경미	2133-5360
소비자보호팀장	박상진	2133-5374
팀장	안진희	2133-4892
누리집	ecc.seoul.go.kr	

### 서울시 '광고 없는 유튜브' 계정공유 사기 급증.. 모니터링 강화해 시민 보호

<유튜브 프리미엄>

- 시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분석,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올해 1~2월만 98건 접수
- 단일 아이디 여러 명 계정 등록, 80% 할인 등 이용자 현혹 후 1~4주만에 계정해지 후 잠적
- 가상사설망 이용해 해외요금제 우회 가입 유도, 계정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
- 피해시 전자상거래센터·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 및 상담... 시, 예방법 안내 등 소비자 보호

#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'캐쉬메이커'에서 판매하는 [유튜브 프리미엄+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]을 구매하고 37,900원을 결제했다.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.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되었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다.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하였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되었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.

-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'소비자피해주의보'를 발령한다고 밝혔다.

□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('24년 1월~2월 18일 기준) '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'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피해유형은 '계약변경/불이행'이 84건(80.8%)으로 가장 많았으며 '운영중단/폐쇄/연락두절'이 14건(13.5%) '계약취소/반품/환급' 4건(3.8%), 서비스 불량/하자 1건(1.0%), '사기/편취' 1건 (1.0%) 순이었다.
-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'캐쉬메이커'를 비롯해 '유통프리미엄최저가', '판다튜브', '준혁상점(SNS SERVICE)', '유통월드', '너지네트워크'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'겜스고'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> 소비자 피해 발생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 사이트 (2024.2.18. 기준)

구분	도메인	운영상태
캐쉬메이커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yundodook	운영중단
유통프리미엄최저가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youtube1	운영중단
너지네트워크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nujinetword	운영중단
유통월드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topww	운영중단
겜스고(해외)	https://ko.gamsgo.com	영업중
쉐어365	http://www.share365.co.kr/	영업중
양튜브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yangtube	판매중단
준혁상점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snsservice	운영중단
판다튜브	https://smartstore.naver.com/hootube	운영중단

□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'유튜브 프리미엄' 요금이 지난 12월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,900원으로 약 43% 인상되자 소비자들 이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대비 80%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또는 1년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□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(VPN)\*을 이용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 계정정보를 요구하여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.

\* 가상사설망(VPN):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사적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만든 사설 통신망

○ 유튜브 가족 요금제는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다.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,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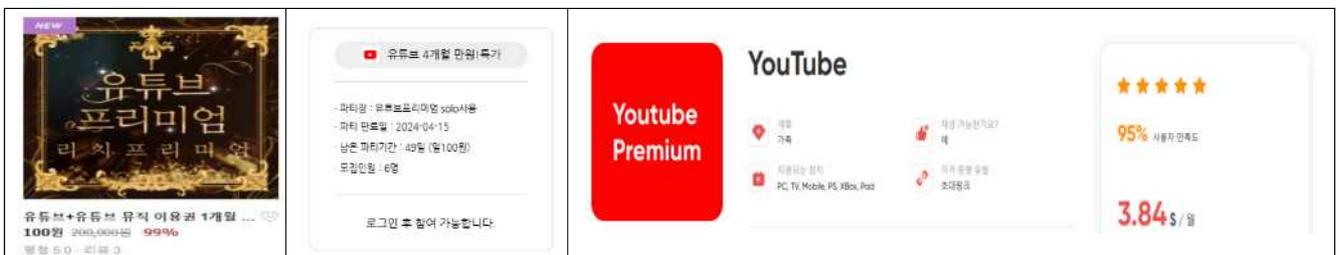
□ 하지만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1~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 중단 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
□ 또,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루어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를테면 ‘결제 후 구매확정\*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’의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이다.

\* 구매확정: 고객이 상품을 배송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반품, 교환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표시로, 구매확정 시 고객의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며 이후에는 반품/교환 신청 어려움.

- 일부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상태이나,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<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 화면 (예시) >



-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.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(ecc.seoul.go.kr, ☎02-2133-4891~6)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-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“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·이용약관 위반 등 비정상적인 경로가 많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”며 “플랫폼 이용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업체는 사이트 차단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## 〈붙임1〉

### □ 소비자 피해사례

- 【사례1】 소비자 A씨는 12월 23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‘캐쉬메이커’에서 판매하는 [유튜브 프리미엄+유튜브 뮤직 이용권 12개월 이용권]을 구매하고 37,900원을 결제했다. 매월 자동으로 서비스 갱신되어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고 후기가 많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구매했다. 그러나 판매자는 이용권 서비스를 일방 해지 후 연락 두절 되었고 사이트에 표시된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확인되었다.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측에 문의하였으나 이용자가 구매확정을 눌러 이미 정산처리가 완료되었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어려워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.
- 【사례2】 소비자 B씨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“유튜브 프리미엄 최저가”에서 [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]을 12,000원 이용권을 1월 17일 구매 후 일주일 정도 사용하였으나, 8일째 되는 날 동업자로부터 운영자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잠적하여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. 동업자 역시 해당 판매자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연락 두절 되어 같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환불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. 아직 구매확정은 하지 않아 간편결제 대행사로 문의하였으나, 판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.
- 【사례3】 소비자 C씨는 동영상 계정공유 서비스로 잘 알려진 ‘겜스고’에서 2월 14일 유튜브 프리미엄 1년 이용권을 55,369원에 구매하였다. 하지만 결제 후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구매 취소하고자 하였으나, 주문 내역과 결제내역을 찾을 수 없다. 게다가 상담 진행이 채팅으로만 가능하며 한국어로 입력하면 번역하여 문의가 되어 직접 영어로 채팅 상담사에게 문의하였으나 구매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주고 있는 상황이다. 카드 결제 대행사에 연락하니 유튜브 측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문의했더니 구매처에 취소 요청하라며 처리를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.

〈붙임2〉

## 소비자 피해현황

□ (접수 건수) 최근 7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104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 98건이 2024년 2개월간 접수되었다.

- '24년 1월에 캐쉬메이커와 유튜브프리미엄최저가 운영자가 계정해지 후 잠적하면서 피해가 급격히 증가

< 월별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 ('23.08.01.~ '24.02.18.) >

구분	2023년					2024년		계
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
상담건수	1	-	3	2	-	19	79	104
피해금액	26,977	-	89,400	66,800	-	504,760	2,163,424	2,851,361

□ (업체별) 캐쉬메이커가 84건(80.8%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유튜브프리미엄최저가 8건(7.7%), 너지네트웍 4건(3.8%) 순이다.

< 업체별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 ('23.08.01~24.02.18) >

업체명	피해건수	비율	피해금액
캐쉬메이커	84	80.8%	2,289,615
유튜브프리미엄최저가	8	7.7%	187,900
너지네트웍	4	3.8%	119,400
유튜브월드	3	2.9%	77,300
겜스고(해외)	1	1.0%	55,369
쉐어365	1	1.0%	26,977
양튜브	1	1.0%	36,900
준혁상점	1	1.0%	29,900
판다튜브	1	1.0%	28,000
계	104	100.0%	2,851,361

□ (피해 유형별) 계약변경/불이행이 84건(80.8%)로 가장 많았으며, 운영중단/폐쇄/연락불가 14건(13.5%), 계약취소/반품/환급이 4건(3.8%) 순으로 나타남.

< 피해 유형별 접수 건수 ('23.08.01~24.02.18)>

피해 유형	피해건수	비율
계약변경 / 불이행	84	80.8%
운영중단 / 폐쇄 / 연락불가	14	13.5%
계약취소 / 반품 / 환급	4	3.8%
제품불량 / 하자	1	1.0%
사기 / 편취	1	1.0%
계	104	100.0%

□ (연령대별) 20대가 49건(47.1%)로 가장 많았으며, 30대 36건(34.6%), 40대 11건(10.6%), 15~19세 5건(4.8%) 순으로 나타남.

< 연령별 접수 건수 ('23.08.01~24.02.18)>

연령별	피해건수	비율
15세 ~ 19세	5	4.8%
20세~29세	49	47.1%
30세~39세	36	34.6%
40세~49세	11	10.6%
50세~59세	2	1.9%
60세이상	1	1.0%
계	104	100.0%